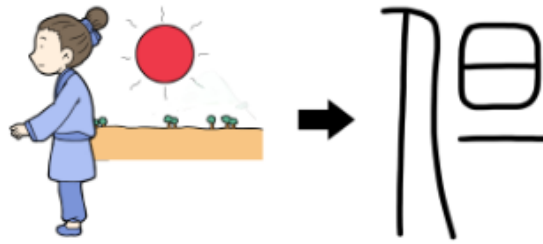


3(2)
-
81

회의문자 ①



但

다만 단:

但자는 '다만'이나 '그러나'와 같은 어조사로 쓰이는 글자이다. 但자는 人(사람 인)자와 旦(아침 단)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旦자는 지평선 위로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아침'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태양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을 표현한 글자가 바로 旦자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을 그린 旦자와 人자가 결합한 但자는 "사람이 모습을 드러내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만'이나 '오직'이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어 쓰이고 있다.

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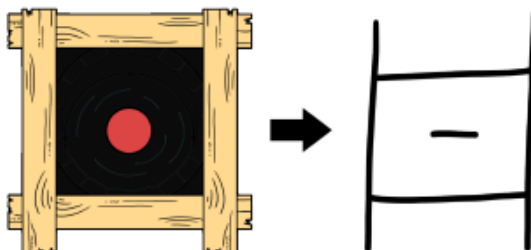
소전

但

해서

3(2)
-
82

상형문자 ①



丹

붉을 단:

丹자는 '붉다'나 '붉은빛'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丹자의 갑골문을 보면 井(우물 정)자에 점 이 卩 찍혀있었다. 여기서 井자는 광산의 입구를 그린 것이고 입구에 찍혀있는 점은 주사(硃砂)라고 불리는 수은 광물질을 표현한 것이다. 주사는 광산에서만 채취할 수 있는 광물질이다. 그래서 丹자는 주사를 얻을 수 있었던 광산 입구에 점을 찍은 모습으로 그려졌다. 주사는 단사(丹砂)라고도 불리는데, 예부터 중국에서는 경련이나 발작을 진정시키는 약재로 사용했다. 주사가 붉은색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丹자는 '붉다'나 '붉은빛'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丹

갑골문

丹

금문

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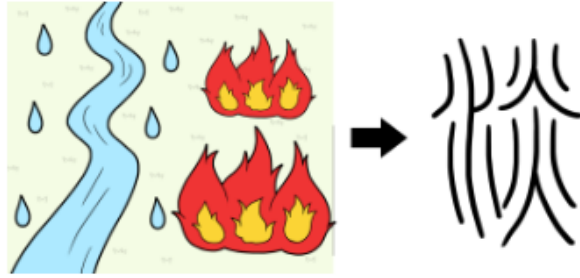
소전

丹

해서

3(2)
-
83

회의문자 ①



淡

맑을 담

淡자는 '맑다'나 '싱겁다', '담백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淡자는 水(물 수)자와 炎(불탈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炎자는 '불타다'라는 뜻을 가지고는 있지만, 여기에서는 '염→담'으로의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淡자는 물의 '농도가 옅다'라는 것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로 水자가 의미 역할을 하고 있다.

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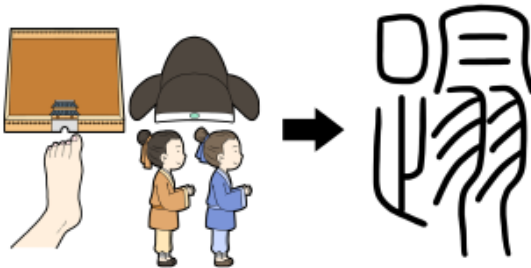
소전

淡

해서

3(2)
-
84

형성문자 ①



踏

밟을 답

踏자는 '밟다'나 '디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踏자는 足(발 족)자와 𨇗(유창할 답)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踏자에 쓰인 𨇗자는 단순히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그런데 소전까지만 하더라도 𨇗(밟을 답)자가 '밟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𨇗자에서는 𨇗(답)자가 발음역할을 했었으나 해서에서는 𨇗(답)자 대신 𨇗(답)자가 발음역할을 하게 되면서 지금은 踏자가 '밟다'나 '밟고 가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踏자는 '밟다'라는 의미가 확대되면서 '행적'이라는 뜻도 파생되어 있다.

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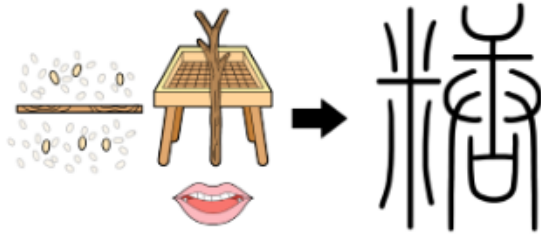
소전

踏

해서

3(2)
-
85

회의문자 ①



糖

엿 당

糖자는 '사탕'이나 '엿'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糖자는 米(쌀 미)자와 唐(당나라 당)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唐자는 곡식을 털어내는 '탈곡기'와 입을 함께 그린 것이다. 지금이야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설탕으로 단맛을 내지만 이전에는 쌀이나 찹쌀, 맥아를 끓여 농축한 것을 당화시켜 엿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했다. 그러니 糖자에 쓰인 米자는 단맛을 내는 성분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糖자에 쓰인 唐자는 발음 외에도 곡식을 가공한다는 의미도 함께 전달하고 있다.

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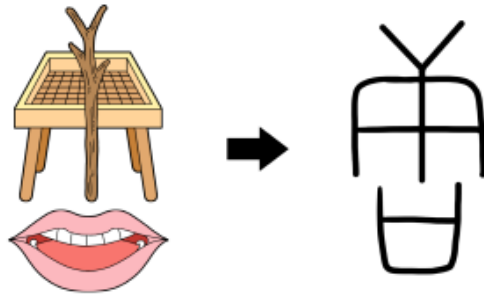
소전

糖

해서

3(2)
-
86

회의문자 ①



唐

당나라/
당황할
당(:)

唐자는 '당나라'나 '당황하다', '큰소리'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唐자는 庚(별 경)자와 口(입 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庚자는 탈곡기에서 떨어지는 곡식의 낱알을 받아먹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큰소리치다'나 '허풍', '당황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러나 '당나라'가 세워진 이후부터는 唐자에 대한 해석도 달라졌다. 나라 이름이 '당황하다'라는 뜻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의 唐자는 탈곡기에서 떨어져 나오는 쌀을 풍족하게 받아먹는 모습으로 해석하여 '풍요로운 나라'를 뜻하게 되었다. 다만 이때는 나라 이름을 뜻할 때이고 일반적으로는 여전히 '당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唐

갑골문

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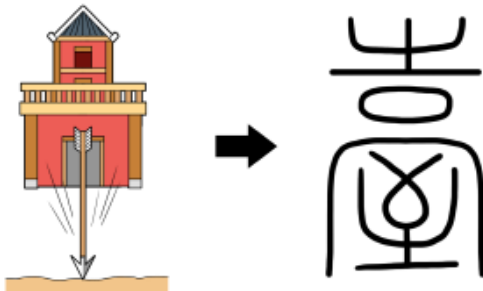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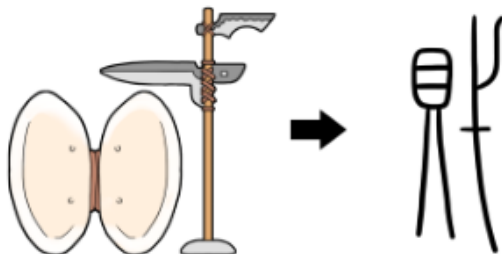









唐

소전

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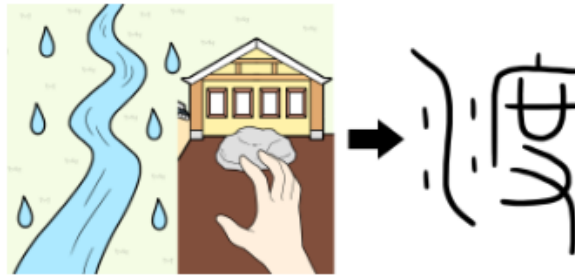
해서

3(2) - 87	<div>회의문자 ①</div> <div></div>				
臺	臺자는 '무대'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臺자는 高(높을 고)자와 至(이를 지)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高자는 높은 건물을 그린 것으로 '높다'나 '크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臺자는 본래 주위의 등정을 살피는 망루나 높은 단상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그래서 臺자는 높은 건축물을 뜻하는 高자와 至자를 결합해 '높은 곳에 이르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이 올라가 있을 정도의 높고 평평한 곳을 뜻하기 때문에 '무대(舞臺)'나 '돈대(墩臺)'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대 대					
	<table><tr><td></td><td></td></tr><tr><td>소전</td><td>해서</td></tr></table>			소전	해서
					
소전	해서				

3(2) - 88	<div>회의문자 ①</div> <div></div>						
貸	貸자는 '빌리다'나 '꾸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貸자는 代(대신할 대)자와 貝(조개 패)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금문에서는 戈(창 과)자와 貝자가 결합한 賁(빌릴 특)자가 '빌리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賁자는 본래 '무력으로 얻어 내다'라는 의미에서 '빌리다'를 뜻했었다. 그러니까 賁자는 무기로 위협하며, 남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을 '빌리다'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소전에서는 '대신하다'라는 뜻을 가진 代자가 쓰인 貸자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賁자는 무력으로 '얻어 내다'를 뜻하게 되었고 貸자는 남에게 부탁하여 '빌리다'라는 뜻으로 분리되었다.						
빌릴/꺾대:							
	<table><tr><td></td><td></td><td></td></tr><tr><td>금문</td><td>소전</td><td>해서</td></tr></table>				금문	소전	해서
							
금문	소전	해서					

3(2)
-
89

회의문자 ①



渡

건널 도

渡자는 '건너다'나 '지나가다', '영향을 주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渡자는 水(물 수)자와 度(법도 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度자는 지붕 위로 돌을 던지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돌을 던지는 모습을 그린 度자에 水자를 더한 渡자는 물 위로 돌을 던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渡자는 강 건너로 돌을 던지는 모습으로 그려져 '건너다'라는 뜻을 표현한 글자이다.

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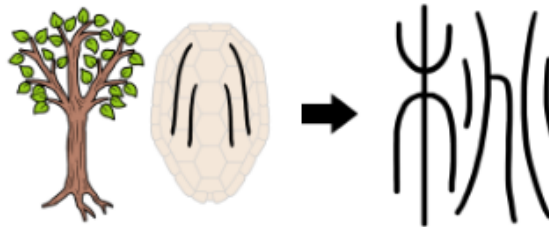
소전

渡

해서

3(2)
-
90

형성문자 ①



桃

복숭아
도

桃자는 '복숭아'나 '복숭아나무'를 뜻하는 글자이다. 桃자는 木(나무 목)자와 兆(조짐 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兆자는 거북의 배딱지(復甲)에 나타난 점괘를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조→도'로의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복숭아에 대한 고대인들의 인식은 매우 극단적이었다. 설화에서는 장수의 상징인 천도(天桃)복숭아 이야기가 전해져오지만, 도화살(桃花煞)이 있는 여자는 한 집안을 망하게 한다는 민간신앙도 있다. 복숭아는 귀신을 내쫓기 때문에 제사상에는 물론 집안에도 복숭아나무를 심지 않았다. 그래서 어찌 보면 桃자에 쓰인 兆자는 발음역할 외에도 복숭아가 신(神)적인 것과 연관된 과일임을 뜻하기 위해 쓰인 것일 수도 있다.

桃

소전

桃

해서